경찰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11.(목) 조간, 누리망 방송 2023. 5. 10.(수) 12:00

서울대병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건(2021년), 북한 소행

- 약 83만 명의 환자·직원 개인정보 유출 정황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 2021년에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국내·외에 소재한 서버 7대를 장악하여 공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서버의 취약점으로 내부망에 침입하여 환자 81만여 명, 전·현직 직원 1만 7천여 명 등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그간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주요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을 여러 차례 수사한 사례가 있으며,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다수 사건과 비교하여, △공격 근원지의 아이피(IP) 주소 △ 인터넷 사이트 가입정보 △ 아이피(IP) 주소 세탁 기법 △ 시스템 침입·관리 수법 등이 같고, △ 북한어휘를 사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하였다.

경찰청은 피해기관에 침입 및 정보 유출 수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권고사항을 설명하였고, 관계기관에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 수법·해킹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의료 분야 외 다른 분야에도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시도를 지속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불법적인 접속 시도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전산 자료 암호화 등 보안 시스템과 보안정책 강화를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국가 배후의 조직적 사이버 공격에 대해 치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 사건 개요도(별도 첨부)

담당 부서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과	책임자	총경	정석화 (02-3150-0053)
		담당자	경정	이승운 (02-3150-145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